품격높은 문화유산도시 '우뚝'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보물'로 승격… 고창군 보유 국가지정문화재 26점으로 늘어

고창군은 26일자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불상은 지난 4월 29일자로 보물 지정 예고되었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날 보물로 지정됐다.

불상은 1973년 6월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선운사 약사여래불상'으로 지정된 이후 두건과 목걸이 장식, 보주(寶珠)를 든 모습 등 전체적인 특징이 재검토돼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물의 지위를 갖게 됐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지장전(地藏殿)에 봉안된 지장보살좌상은 두건과 섬세한 얼굴 표현,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여의두(如意頭) 형태로 마무리된 띠 장식과 보주를 든 모습, 치마를 묶은 띠 매듭 등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당시 조각 양식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이 시기 금동과 목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몇 점이 전해지고 있으나 석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은 거의 유일하고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대좌(臺座)는 불상에 비해 큰 편으로 가느리고 긴 형태이며 상·중·하대를 완전하게 갖췄다.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새겨진 안상(眼象)과 연화문(蓮華門)이 조각됐고, 팔각형의 중대석은 석등을 연상케 하는 등 고려시대 특징을 잘 보여줘 보살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두건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지장 신앙을 잘 전해주고,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79호),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등과 함께 고창 선운사의 지장삼장(地藏三藏)이며, 그림이 아닌 불상으로 안치된 점이 매우 특징적으로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다.

고창군은 이번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보물승격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모두 26점(보물 9점, 사적 6점, 명승 1곳, 천연기념물 7점, 국가민속문화재 2점, 구가무형문화재 1명)으로 늘었다.

고창 선운사 약사여래불상.

이외에도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천연기념물), 고창오거리당산제(국가무형문화재)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고창 문수사 대웅전(보물), 고창농악(국가무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보물 등재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득 보유한 역사 깊은 도시로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내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6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완주만의 특색있는 역사 정체성의 모색과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 전시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먼저 최완규 원광대학교 교수의 '마한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완주' 특별강연회가 지난 20일 박물관 강당에서 실시됐다. 2차 강연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립광주박물관 진정환 학예연구관의 '국가비보의 상징, 완주의 불교미술'이라는 제목으로 예정돼 있다. 29일 오후 3시에는 전시 담당자가 직접 들려주는 전시해설 행사(큐레이터와의 대화)가 기획전시실에서 준비됐으며, 7월 6일 오후 2시에는 강당에서 뮤지컬 '삼례, 다시 봄'이 펼쳐진다. 사전 예약은 완주문화예술(http://culture.wanju.go.kr)에서 할 수 있다.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박물관에서 완주 한바퀴'는 아이들이 직접 전시실을 감상하며 활동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약을 통해 강사와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마한 사람들의 보물, 곡옥 팔찌 만들기'와 '쓱~ 찍고, 만나는 문화재'는 방학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곡옥 팔찌 만들기는 전시를 감상하고 마한 사람들이 아끼던 장신구인 곡옥 팔찌를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행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주요 전시품의 문양을 에코백에 실크스크린으로 직접 찍어보고 가져갈 수 있는 교육이다.

두 프로그램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진행되며, 예약은 7월 8일부터 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과 전화(063-220-1038, 1016, 1035)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조계종,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 법 위반했다"

지노위, "단체교섭 성실히 임하라" 판정

대한불교 조계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조계종 유지재단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지노위는 조계종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계종단은 즉시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노조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면서 "종단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종무원의 권익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종단은 이제부터라도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면서 "종무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노조는 작년 9월20일 지부를 설립했다. 이후 종단에 3회에 걸쳐 공식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6개월 뒤 조계종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뉴시스

태권도원 캐릭터.

웹툰·게임으로 만나는 태권도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콘텐츠 육성위해 9억원 투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게임 및 웹툰 제작 지원 사업 등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재단은 '2019 태권도 소재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이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2019 태권도 소재 연재 웹툰 제작 지원'(이하 웹툰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각각 8월 13일과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공모 대상은 PC, 어트랙션, 아케이드 형태 등의 게임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으로, 3개 내외의 당선작에 총 6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태권도의 품새·겨루기·시범 등 기술적인 부문과 함께 전통·철학·가치 등의 정신적인 부분을 반영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 태권도장과 학교, 성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기능성 게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웹툰 제작 지원' 사업은 웹툰 연재 가능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온라인 연재 매체, 매니지먼트사, 에이전시 등)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3개 내외의 당선작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캐릭터와 스토리 등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웹툰을 제작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태권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콘텐츠 창작 및 대중 노출 확대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재단은 태권도진흥과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게임 및 웹툰 제작 지원' 관련 공모 신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